

e-KIET 산업경제정보

지역 간 성장격차의 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요 약]

- 2000년대 들어 광역경제권 간 지역내총생산(GRDP)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지역 간 성장률의 격차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정보,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가공조립형 산업에서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
- 지역발전의 대표적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성과 고용에 의해 결정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격차지수를 요인 분해하면, 지역 간 격차는 주로 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지역 간 생산성 격차는 주로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지역 간 격차에 의해 발생
 -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인구대비 경제활동연령층 비중 등의 고용 관련 요인은 1인당 GRDP의 지역 간 편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따라서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역발전과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의 핵심
 - 저생산성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지역 간 발전격차의 완화라는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해소
 - 또한 저발전지역의 생산성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인한 시장실패 보정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

□ 지역내총생산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1989년부터 2008년까지 4개의 경기순환 기간에 걸쳐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국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경제권별 성장률 격차는 200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경제권별 최대 성장률 지역과 최소 성장률 지역 간 편차는 1994~1997년 중 2.16%포인트에서 2004~2008년 중에는 4.27%포인트까지 확대됨(<표 1> 참조).
 - 수도권과 충청권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은 1999년 이후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16개 시·도 기준의 성장률 변이계수¹⁾도 <그림 1>과 같이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도 간 성장률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광역경제권별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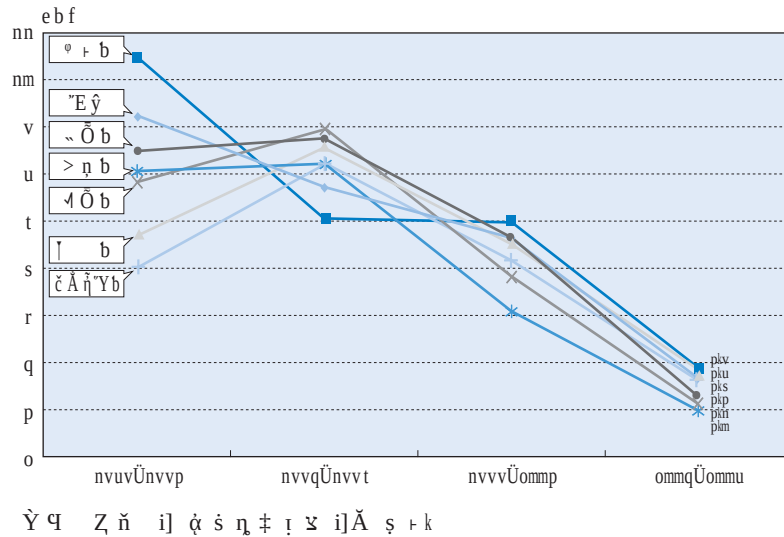
산업구분	지역구분	1989~1993	1994~1997	1999~2003	2004~2008
전 산업	전국	8.16	7.06	6.82	4.13
	수도권	9.22	6.18	7.30	4.42
	충청권	9.56	7.56	7.69	6.47
	호남권	7.52	8.17	4.78	2.95
	동남권	6.83	8.34	6.43	3.15
	대경권	5.86	7.55	7.14	3.86
	강원제주권	5.91	7.02	5.62	2.20
	최대값 - 최소값 편차(%포인트)	3.70	2.16	2.91	4.27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 연도.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1998년은 제외함.

1) 변이계수는 어떤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서 그 변수의 분포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격차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됨.

광역경제권별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 추이



j]huαZ ommqÜommuз ∫ ŌŖə ǎś ǎ ñĩ Òở z ǎᎠ Ḳ Ṗ ā ⇨ Ĵ
 √ > 𐌺 𐌛 Ć ñ“Yb ò ñ ȝ 𐌆 𐌺 𐌶 qkoÜnnkp b] h ẽ ʘ Z 𐌺 ò Ōwi
 † “Eǎ ś Ū 𐌺 Ōb Ś † ̄ǎ ś Ū † b ǎ Ŗ o𐌆 Ṳ “ở z ǎᎠ Ḳ Ṗ Ĭ
 æ ùk

Ȳ Ñ Ŧ Ƶ ı Ŧ ƒ Ō ỏ ặ Æ ơ "E ƒ Ō Ñ ĩ — ǻ ı ă ı ă Ɔ ỏ L ı ā "EK
 "EO ư !! ° ı ơ ặ ă ừ e<h Γ p> Y ĩ f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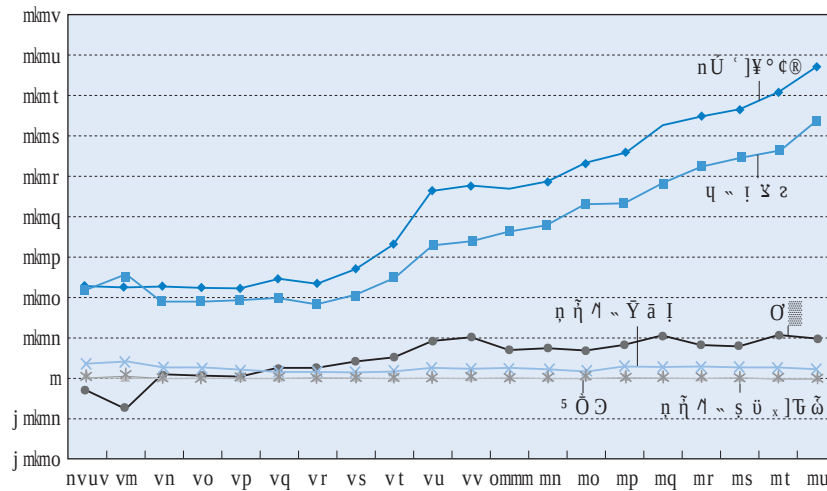
□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을 격차 확대는 가공조립형 산업의 지역 간 성장격차에 기인

ommmз > ѣ ї Ò ő ą ś ă z ǎ Ɔ Ł ȑ ↓ > ə "Yθ "EỲ ẵ æi]O ẵ i]Ỳ ẵ
 ȑi] ї τ .. ā Ǻ ї Ƨ 1 ɣ Ò ő z ǎ Ɔ Ł ȑ ā ą ś ă Ȧ ↓ > ǁ ỉ Ȧ ő ɣ
 K ɪ ɤ k

ommqÜommu з ∫ O ỏ ư ã ϕ ƒ b S | b ỏ ā R ỉ ɗ 1 ʒ Ò ş ´ G z
 ä Ɔ Õ Ä Ä nokn b i] n t k p b R º M ə K ɤ i] ˘ Õ b Õ skm b R ɗ ǣ ̄ Ũ ̄
 e<hυ Γ q> Ȳ ỉ f k

ā Ĥ ĩ Д 1 з Õ ő ǻ š ă ɹ ǻ Ɔ L' ṙ ā ʌ > ̲ ō Ũ' ɸ ĩ Ŏ K ɾ iɭ f

지역 간 1인당 GRDP 변이계수의 분해 결과


$$\dot{Y} \in Z_n \quad i] \quad \dot{\alpha} \in \eta \neq \mathbb{I} \quad \mathbb{Z} \quad i] \check{A} \quad \mathbb{S} \quad \vdash k$$

"Y O o R ä z ö 7k]s> T s n ñ b e č Ā Š ŋ "Y o M Z ỏ T s n ñ b Ō ẻ Z 7f]O'ók

j|nŨ´ ¥°¢®) ı Ŭň φ Ř ∪ ı ~ ĩ Ʒ z ı Ŭň φ ā ρ̇ Ḃ Ⓣ ŵ Ő ´

G“EÕ ı İ u o b Ř ₺ \k

Ў Ñ Ŧ ¶ º Ò Ð i] ȳ ħ ʌ ∞ Ŷ ā Į i] Ŭ Ÿ > Ţ ȳ ħ ʌ ∞ ş ü ₓ Ţ Ź Ñ ᵛ
 ǻ ś ă ~ ρ ā nŮ ‘ ¥ ° ℥ ® Ǿ ǻ ś ă ~ ρ Ñ ħ ₃ ɵ Ŧ ¶ Õ ħ ħ Ⅳ ĭ Ő
 Ɔ Z ⠏ Ū k

j|Uəōã‘əŨŶíŨŮnŨ‘¥°¢®ởặsăLřŘM^hIṬ∇
ồ“YặљМōŨ^həґаồæŚốk

□ 노동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에서 크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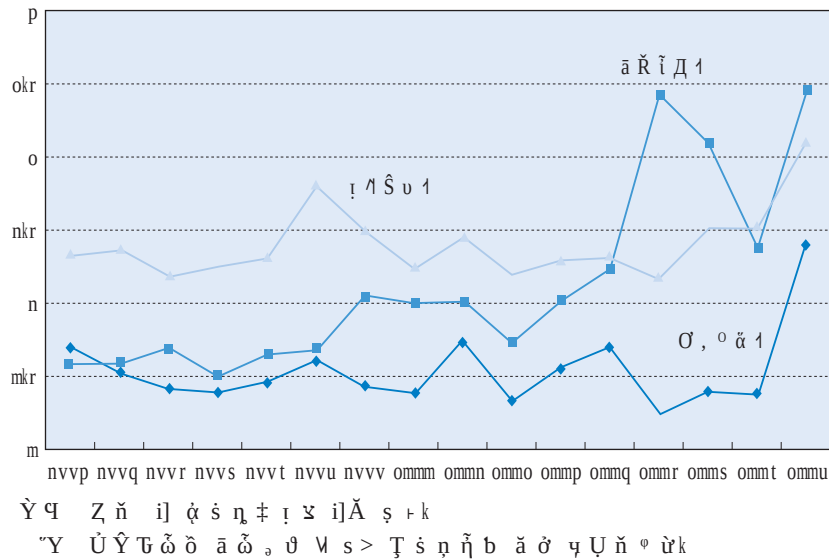
ħ ĭ Ò Ś Ɔ Ƨ ƒ Ò Ő ʘ Ŷ ǣ Ƶ Ś ɿ ˜ æ ɲ i] ǻ ś ǎ ɥ ˘ ɪ ʒ ʒ L ˙ ɐ ˝Y
 ʘ ħ ĭ Ò ʘ ɥ ˘ ɪ ʒ ʒ L ˙ ɹ Ō Ũ ʍ ɐ ı Ő ʘ ʒ ̄k

j]ñĩ Òở ặ ã ð ñ ~ ı ꝛ ꝛ L'đ ắ ¢ ā ắ 8 "EÕ ๓ " ş M ō Ũ'
 ๑ K ъ i] ı Ꞥ f Õ ö ħ ở ắ ñ ã ư ~ ı ꝛ ꝛ L'đ ๑ omm z ö • !! °
 ı ๑ › r ù e<ħ Γ s> Ȳ ï fk

' M ñ ĩ Ò Ó Ů Ƨ Ỡ ỏ T s n ã b M y ~ i z z ϕ ó ò ∫ O M ʘ Ƨ ú

〈그림 9〉

산업유형별 노동생산성 가중변이계수 추이



φ 𐤁 ă ǝ L ȑ ǻ 𐤃 𐤃 𐤆 O M 𐤄 𐤆 𐤀 𐤇 𐤈 𐤉 𐤊 𐤋 𐤌 𐤍 𐤎 𐤏 𐤐 𐤑 𐤒 𐤓 𐤔 𐤕 𐤖 𐤗 𐤘 𐤙 𐤚 𐤛 𐤜 𐤝 𐤞 𐤟 𐤠 𐤡 𐤢 𐤣 𐤤 𐤥 𐤦 𐤧 𐤨 𐤩 𐤪 𐤫 𐤬 𐤭 𐤮 𐤯 𐤰 𐤱 𐤲 𐤳 𐤴 𐤵 𐤶 𐤷 𐤸 𐤹 𐤺 𐤻 𐤼 𐤽 𐤾 𐤿 𐰀 𐰁 𐰂 𐰃 𐰄 𐰅 𐰆 𐰇 𐰈 𐰉 𐰊 𐰋 𐰌 𐰍 𐰎 𐰏 𐰐 𐰑 𐰒 𐰓 𐰔 𐰕 𐰖 𐰗 𐰘 𐰙 𐰚 𐰛 𐰜 𐰝 𐰞 𐰟 𐰠 𐰡 𐰢 𐰣 𐰤 𐰥 𐰦 𐰧 𐰨 𐰩 𐰪 𐰫 𐰬 𐰭 𐰮 𐰯 𐰰 𐰱 𐰲 𐰳 𐰴 𐰵 𐰶 𐰷 𐰸 𐰹 𐰺 𐰻 𐰼 𐰽 𐰾 𐰿 𐱀 𐱁 𐱂 𐱃 𐱄 𐱅 𐱆 𐱇 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𐲀 𐲁 𐲂 𐲃 𐲄 𐲅 𐲆 𐲇 𐲈 𐲉 𐲊 𐲋 𐲌 𐲍 𐲎 𐲏 𐲐 𐲑 𐲒 𐲓 𐲔 𐲕 𐲖 𐲗 𐲘 𐲙 𐲚 𐲛 𐲜 𐲝 𐲞 𐲟 𐲠 𐲡 𐲢 𐲣 𐲤 𐲥 𐲦 𐲧 𐲨 𐲩 𐲪 𐲫 𐲬 𐲭 𐲮 𐲯 𐲰 𐲱 𐲲 𐲳 𐲴 𐲵 𐲶 𐲷 𐲸 𐲹 𐲺 𐲻 𐲼 𐲽 𐲾 𐲿 𐳀 𐳁 𐳂 𐳃 𐳄 𐳅 𐳆 𐳇 𐳈 𐳉 𐳊 𐳋 𐳌 𐳍 𐳎 𐳏 𐳐 𐳑 𐳒 𐳓 𐳔 𐳕 𐳖 𐳗 𐳘 𐳙 𐳚 𐳛 𐳜 𐳝 𐳞 𐳟 𐳠 𐳡 𐳢 𐳣 𐳤 𐳥 𐳦 𐳧 𐳨 𐳩 𐳪 𐳫 𐳬 𐳭 𐳮 𐳯 𐳰 𐳱 𐳲 𐳳 𐳴 𐳵 𐳶 𐳷 𐳸 𐳹 𐳺 𐳻 𐳼 𐳽 𐳾 𐳿 𐴀 𐴁 𐴂 𐴃 𐴄 𐴅 𐴆 𐴇 𐴈 𐴉 𐴊 𐴋 𐴌 𐴍 𐴎 𐴏 𐴐 𐴑 𐴒 𐴓 𐴔 𐴕 𐴖 𐴗 𐴘 𐴙 𐴚 𐴛 𐴜 𐴝 𐴞 𐴟 𐴠 𐴡 𐴢 𐴣 𐴤 𐴥 𐴦 𐴧 𐴨 𐴩 𐴪 𐴫 𐴬 𐴭 𐴮 𐴯 𐴰 𐴱 𐴲 𐴳 𐴴 𐴵 𐴶 𐴷 𐴸 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𐹠 𐹡 𐹢 𐹣 𐹤 𐹥 𐹦 𐹧 𐹨 𐹩 𐹪 𐹫 𐹬 𐹭 𐹮 𐹯 𐹰 𐹱 𐹲 𐹳 𐹴 𐹵 𐹶 𐹷 𐹸 𐹹 𐹺 𐹻 𐹼 𐹽 𐹾 𐹿 𐺀 𐺁 𐺂 𐺃 𐺄 𐺅 𐺆 𐺇 𐺈 𐺉 𐺊 𐺋 𐺌 𐺍 𐺎 𐺏 𐺐 𐺑 𐺒 𐺓 𐺔 𐺕 𐺖 𐺗 𐺘 𐺙 𐺚 𐺛 𐺜 𐺝 𐺞 𐺟 𐺠 𐺡 𐺢 𐺣 𐺤 𐺥 𐺦 𐺧 𐺨 𐺩 𐺪 𐺫 𐺬 𐺭 𐺮 𐺯 𐺰 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ħ ĩ Ò ö Ɔ ǻ ˆ ǻ ı ʒ ɹ ʹ ʹ ā ǻ 𐍈 𐍄 𐍅 𐍆 𐍇 𐍈 Ò ħ
 ĩ Ò Ɔ ʹ 𐍈 𐍄 𐍅 𐍆 𐍇 𐍈 Ò ħ 𐍈 𐍄 𐍅 𐍆 𐍇 𐍈 Ò ħ

j I . n p ē ē 1 ở ñ ã Ò ē ¯ ắ s ă ư ̣ ı ʒ ɹ L ʀ ā ɹ > ɹ ɐ
 ë ɓ ò æ ʊ ō Ǿ ǻ i] ɤ ǣ ā Ǻ ĩ ɗ 1 ʒ Ò ʊ ommm ɜ > ǿ Ƙ ʊ ɹ ắ
 s ă ư ̣ ı ʒ ɹ L ʀ ā ā ǣ 𐍚 Ǿ ʊ ǿ " ʍ i ố k

□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nvvm3 > M ᵁ √ ǫ ǻ ś ǻ K"EL ṛ √ > ʘ "EK"EO ʘ ǻ ǻ Ò ǫ ǻ ǻ
ǻ ʘ ǻ ∅ L ṛ ā √ > ᵒ ǻ R Oᵁ M ʘ ǻ Ō ʘ Z ̄k

j l Z u ă s ă K E L p İ W J M O ẽ v u o ă s ă z Ö ö z ä D L
 p İ W J M O ẽ M > ò i j x ä ĩ ĭ Ö ö z ä D L p İ W J M O ẽ M
 > ò U 3 u n L V k

ñ ï Ò Ǿ ǻ š ă ɹ ǻ Ɔ Ł ȣ Ĩ Ī Ō Ƶ ɐ ı Ů Ŭ i

- 첫째,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의 지역 내 비중으로 나타나는 지역 내 산업구성의 차이,
 - 둘째, 지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차이,
 - 셋째, 지역 내 기업의 신규 유치 또는 퇴출, 기존 기업의 증설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차이 등을 들 수 있음.
-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지역에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구성을 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질 좋은 성장을 촉진하거나, 저성장지역의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어떠한 요인이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제조업의 성장률 격차를 야기한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긴급요

- 앞의 분석에서 지역 간 1인당 GRDP의 격차 확대가 지역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지역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의 생산성 격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짐.
-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전적 성장론과 신성장론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
- 고전적 성장론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자본 및 노동이 고생산성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봄.
- 그러나 지식과 기술을 주요한 생산요소로 포함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신성장론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확대됨으로써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고생산성 지역으로 자본과 인력이 모이게 되고, 이것이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의 이익에 의해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누적적 과정이 발생함.
-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데,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됨.
- 즉, 고생산성 지역으로 추가적인 투자나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²⁾에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³⁾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과대평가되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다 집중하게 됨.
 - 이는 과도한 혼잡비용을 초래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시장에서 소요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임.

□ 지역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는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제고

-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단지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님.
-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산업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저생산성 산업이 위치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즉, 전국 평균 이하의 생산성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결국 저생산성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지역 간 발전격차의 완

2) 개별적 경제주체가 직접 부담하는 투자비용 또는 개인적 이주비용을 말함.

3)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 투자비용, 교육시설 투자,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 치안유지 비용 등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됨.

는 요인별 변이계수로 구분됨.

$$\begin{aligned} \text{var}\left(\ln \frac{Y}{P}\right) &= \text{var}\left(\ln \frac{Y}{E}\right) + \text{var}\left(\ln \frac{E}{L}\right) + \text{var}\left(\ln \frac{L}{W}\right) + \text{var}\left(\ln \frac{W}{P}\right) \\ &+ 2\text{cov}\left(\ln \frac{Y}{E}, \ln \frac{E}{L}\right) + 2\text{cov}\left(\ln \frac{E}{L}, \ln \frac{L}{W}\right) + 2\text{cov}\left(\ln \frac{L}{W}, \ln \frac{W}{P}\right)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 &+ 2\text{cov}\left(\ln \frac{Y}{E}, \ln \frac{L}{W}\right) + 2\text{cov}\left(\ln \frac{E}{L}, \ln \frac{W}{P}\right) + 2\text{cov}\left(\ln \frac{Y}{E}, \ln \frac{W}{P}\right) \end{aligned}$$

김 영 수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yskim@kiet.re.kr shlee7625@kiet.re.kr
(02-3299-3049) (02-3299-3086)

이 상 호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